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선당후사 결단”

“할 말 많지만...법적투쟁 하겠다”
이재명 “미안하고 결단에 감사”
새 원내대표 주도 채신안 박차
돈봉투 수수 지목 의원 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 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 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당후사(先黨後私)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조사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공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이 의원은 앞서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아쉽고 안타깝다.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결단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권철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윤관석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 자리에서 ‘탈당’을 설득했고, 윤 의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가 이경근 전 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불법 자금 9천여만 원을 당내에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왔지만, 검

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당내에서 거취 정리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결국 탈당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 사태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박광은 원내대표 주도로 이날부터 ‘쇄신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당 혁신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당 소속 의원대상 심층 설문조사 및 대국민 여론 조사, 심층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쇄신 보고서를 마련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쇄신 의원총회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린다’는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윤·이 의원 등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의원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를 두고, 돈 봉투를 수뢰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는 당에서 탈당 및 출당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돈 봉투 수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황 증거가 나온다면 공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돈 봉투 파문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이어 당내 각 계파의 자금줄을 정리한 ‘이경근 노트’에도 현역 국회의원 10여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돈 봉투 사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검찰 수사에 휘둘리면서 돈 봉투 수뢰 의혹을 둘러싸고 내년 총선 공천 전반에 대한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 진상조사로 돈 봉투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데다 검찰 수사 및 혐의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적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민주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게 尹”...태영호 녹취록 수사 압박

이재명 대표 “명백한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는 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나 “라고 되돌으며,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라고도 했다.

선거법 9조 2항에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태 최고위원 녹취록 의혹을 더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공천 거래’라고 보는 민주당은 공천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도 여당에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용기 “독도 방문 日 항의는 명백한 주권 침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일 자신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부는 지금 당장 일본 정부의 내정간섭에 강력히 항의하고, 다시는 내정간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일본 정부 주권 침탈 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고,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일

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와 언론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선량한 일본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며 “일본은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남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독도를 찾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도 공유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 경로로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대중 재단 7일 DJ센터서 발기인 대회

광주·전남 2436명 참여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에서 김대중재단이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김대중 재단은 오는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전남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 발기인으로는 지역 내 재·시민운동가를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학자, 경제인, 문화예술인,

장예인, 일반 시민 등 2436명이 참여했다.

주요 인사로는 김정길 6·15공동선언 남측 상임대표,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 김재형 전 조선대 부총장, 최영관 전 YMCA 이사장, 안성래 전 오월여머니집 관장, 박경린 전 YWCA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동참했다.

이날 열린 광주·전남 발기인 대회에는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대철 현정회장, 황석영 작가 등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한 인사들

과 발기인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주·전남 김대중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은 정구선 전 광주NGO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으며, 오는 6월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경주 김대중재단 이사(광주·전남 설립 준비위 운영·집행위원장)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4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평화가 모두 후퇴하거나 흔들리고 있다”며 “이 난국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김대중재단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화사 상황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